



찾자리에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차가운 돌과 쇠로 만들어진 찻잔받침이나 찻상, 다반(茶盤) 등을 상상할 수 있을까? 찻자리를 한결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차 목공예품을 만들어 온 차 정보(46) 씨를 그의 일곱 번째 개인전에서 만났다.

자연위에 올려진 차한잔 '폼나죠'



차정보씨는 대학을 다니다 어느 날 문득 목수로 변신했다. '죽을 때 까지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목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곤 경남 창원 화왕산 기슭에 작업실 '다천산방'을 열었다. 그가 주로 만드는 것은 차와 관련된 목공예품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작품들도 찻상과 다기장, 다반 등이다.

"어릴 때부터 스님들께 한두 잔씩 차를 얻어 마시면서 차를 즐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차를 마실 때 필요한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 목공예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던 탓인지 지질 줄 모르는 그의 노력 덕분인지 그

놀인 다반을 들어올리기 쉽게 하는 손잡이 역할도 하지만, '다반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도 결국 처음에는 나뭇가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가 만든 작품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 나무의 결과 구멍, 조개집을 그대로 살려두기 때문이다. '생긴 그대로'의 모습이다. '바보찻상'이라고 이름붙인 찻상은 네 모반듯한 다른 찻상들과 달리 울퉁불퉁한 나뭇결을 살린 모습이 '바보'로 취급받는 현실을 웅변하는 것이다. 각 작품마다 제작할 때의 느낌이나 계절의 흐름을 읊은 글로

'가장 정직한 일' 목수 선택
'은은하고 향기롭다' 평
나무, 생긴 그대로 멋 살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작업



의 작품은 "차맛처럼 은은하고 향기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작품을 손수 만들고 다듬어가는 과정 탓에 개인전도 2~3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열지 못했다. 그마저도 작업실과 가까운 부산과 대구에서 주로 소개됐다.

"잘 쓰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목건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나뭇가지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다반도 그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작품이다. 바닥에

조각해 두는 것도 그만의 특징이다.

"나무는 정성을 들인 만큼 윤이 납니다. 정직한 물건이죠. 만들 때는 쓰는 사람의 마음으로, 쓸 때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으로 한다면 오랫동안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나무를 만지기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는 3월4일부터 서울 종로 가전화랑에서의 12일 간의 전시를 마치고 '물소리와 나무향기' 가득한 자신의 작업실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055)521-2533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 목공예품 만드는 차정보 씨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차 목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목수 차정보씨. 사진=박재완 기자

청주 BBS 찻사발 특별전

청주불교방송(사장 지원)은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500년만의 귀향-조선 찻사발 특별전'을 선보인다.

청주불교방송 개국 7주년 및 사육이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 전시회에서는 일본에서 사용되어 온 조선찻사발 40여 점이 선보인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일본 노무라 박물관 타니 학예부장과 일본 고려미술관 김 파랑 씨의 강의와 행다시연 및 들차회, 차음 악회 등도 마련된다. (043)294-5114

日, '녹차 함양 효과 일부 규명'

녹차의 짙은맛을 내는 성분인 에피카로카테킨(EGCG)의 암 억제 구조가 일본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다.

일본 규슈(九州)대학 다치바나 히로부미(立花宏文) 조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유방암과 폐암 등 악성 암세포의 표면에 녹차 2-3잔을 마셨을 때 혈액에 흡수되는 정도의 소량의 EGCG를 첨가한 결과, EGCG가 암세포 표면의 단백질에 달라붙어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사찰 차 모임

법륜왕사
석정원 차회

차 문화, 정신 일상화



2월7일 성신여대에서 열린 제5회 지도자 연수에서 회원들이 선혜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다.

법륜왕사 다도회 '석정원'은 문턱이 높기로 유명하다. 들어가는 문턱이 아니라, 졸업하는 문턱이 높다는 말이다. 회원들의 '수강카드'를 보면 길게는 15년 전부터 교박교박 출석체크를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차문화속에 담긴 정신문화와 풍류생활, 예절의 법도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게 한다"는 설립목적은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석정원을 이끌고 있는 선혜 스

후 5년에 걸친 연구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교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생활차 교수' 과정을 거친 사람만도 500여 명이 넘고, 현재는 100여 명의 수강생이 차인의 길을 걷기 위해 수업을 받고 있다.

1980년 다도교육을 시작한 선혜 스님은 86년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차 전문가를 양성해 왔다. 그동안 생활공예학과 다담상차회, 부도차회 등을 발표해 온 석정원은 일반적인 차예절 강좌뿐만 아니라 차문화 이론교육, 고전강독을 병행함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차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1월 둘째 주에는 2박3일간의 연수를 통해 그동안 배운 것을 익히고 5월에는 선혜 스님이 일구는 보성의 반야다원을 찾아 제다실습을 한다. 6월에는 새로운 차로 품다회를, 겨울에는 송년다회를 열기도 한다.

교육업격, 졸업 까다로워 15년 공부해야 '교수' 인정 고전강독등 이론 실기 겸비

님의 교육은 엄격하다. 보통 1~2년 만에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여타 교육기관과는 달리, 석정원에서는 3년 5개월 과정을 마쳐야 '생활차 교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진정한 '차 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동안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기본교육인 5개월 과정의 생활차와 각각 3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기초과정 '예급(禮級)', 중급과정 '지급(智級)', 고급과정 '선급(禪級)'을 모두 거친

"물(음)과 불(양)이 술을 만나 조화를 이루고, 이 땅(湯水)이 차를 만나 색향미기(色香味氣)로 조화하는 것이 다도입니다. 차를 달이고 마시고 예절을 행하는 과정에서 중정(中正)의 도를 익히는 것, 그럼으로써 스스로의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 바로 다도의 목적입니다."

인터뷰

선혜 스님



연구서적 부족 절실, '차문화사' 출판 예정

"30여 년 동안 차를 배워왔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다양한 제다법을 익히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성신여대 예절다도학과 겸임교수였던 선혜 스님이 오는 4월 초, 강단을 잠시 떠난다. 중국 항주시 절강대학교에 연구교수로 가게 됐기 때문이다.

"일단 1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강의 외에도 복건성과 운남성, 사천

성 등을 두루 돌아다니며 중국의 제다법을 배워올 생각입니다." 귀국한 후에는 성신여대 교수직도 내 놓고 30여 년 차생활을 정리해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차 전문 연구서적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차문화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한 책을 써 볼까 합니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범비가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동해사 감로법비의 성지



-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 ◎ 유유암 15분 소요
- ◎ 대영주사당 완비
-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매년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밤, 낮 없이 범비가 내리고 92년 10월 29일 찬란한 무지개 발현, 11월 8일 오색불꽃이 발현, 새벽기도중인 신도들을 감탄케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법비와 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 계신곳 동해사에 오서 삼사순례도 하시고 10분기도로 한가지소원을 몸소 체험해 보세요.

동해사 주지 혜명 합장

강원도 양양군 손안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니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홍복사·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계방면으로 10분 거리
-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 (063) 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동